

# 재외동포 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 운영

### 전주시, 필리핀 등 11개국 청소년들 대상 16일~23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서 진행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대한민국의 정신과 전통문화를 배우고 있다.

14일 전주시와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따르면 오는 16일~23일까지 8일간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필리핀 등 11개국 2~3세대 재외동포 청소년(11세~15세) 30여명이 참여해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옥마을 등 전주시 일원에서 '재외동포 청소년 한국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가 주최하고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주관하는 재외동포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사람, 생태, 문화, 따뜻한 일자리가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민선 6기 후반기 7대 핵심프로젝트 중 전주를 글로벌 문화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이들은 8일간 일정동안 한글교육과 함께 스토리텔링으로 배우는 전주와 한국역사문화, 풍물·탈춤·민요 교육, 도자기·한지 만들기 체험 등 모

국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배우게 된다.

또한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되는 한옥체험학습을 통해 한옥마을을 이야기 투어, 선비길 산책, 전통예절체험과 다도, 붓글씨 체험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전주의 전통문화를 몸소 느끼고 체험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특히 한글교육은 전주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강사진들이 기존의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음악과 미술, 스토리텔링,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모국어를 좀 더 친숙하게 배울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Pop으로 배우는 한국어 배워보기 △동요와 가곡으로 배우는 한국어 교육 △우리가라 배우기(장구) △'꼬마춤' 강령 탈춤 △'한소리(우리민요)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에 앞서 시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8월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 등 6개국 2~3세 재외동포 청소년 24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한국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타국에서 생활하는



**SI 차량소독** 14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현황 점검차 전북 정읍을 방문했다.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황 보고를 받은 문 전 대표가 영월면의 거점소독시설로 자리를 옮겨 근무자들을 격려한 뒤 직접 차량소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소년들에게 전주의 전통문화를 알렸다. 시는 지난 1차 연수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2차 연수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참여 학생들에게 한국의 정신과 우수한 문화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민족문화 정체성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수가 끝난 후 일상으로 돌아간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한국 고유의 문화와 전주가 가진 문화관광자원들을 널리 알리는 민간홍보대사 역할도 특목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근 기자



## 전북경찰청, 테러 대비 안전활동 만전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최근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 불안정에 따라 '경계강화'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북한의 후방테러 및 자생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대테러 안전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테러예방을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주요시설의 적극적인 자체 방호태세도 매우 중요하다"며 노력을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 선배 차량 훔쳐 팔려던 20대 검거

진한 선배의 차량의 차기를 훔쳐 중고매매상사에 팔려던 20대가 검거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절도혐의로 안모씨(26,남)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11월 24일 전주시 평화동의 한 길가에 주차돼있던 진한선배 양모씨(35,남)의 소유인 시

## 구급대원 폭행 60대 취객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운현 판사는 14일 술에 취한 자신을 도와준 구급대원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60,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7월 10일 전주 완주군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구급차원을 신고했다.

술에 만취해있던 임씨는 구급차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구급대원의 앉아있으라는 요구에 화를 내며 목을 졸라 집유 2주의 상해를 입힌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재판을 내린 정운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 자전거 17대 훔쳐 판 60대 검거

군산경찰서는 14일 자전거 17대를 훔쳐 판매해 1,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모씨(64,남)를 상습절도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자전거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자로 대놓고 자물쇠를 공구로 자르거나 자전거를 그자리에서 분해해서 가져가는 기습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판매할때 역시 도난 자전거임을 걸리지 않기위해 도색을 하거나 분해를 해서 판매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범행 사실 여부 조사에 나섰다.

/김민근 기자

## 성매매 유도한 유흥주점 업주 집행유예 2년 유지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본인의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하고 돈을 챙긴 김모씨(54,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판결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러 원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 명했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5년간 대리고 있던 종업원 B씨로 하여금 단골손님 A씨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는 성매매 1회당 27만원을 받았으며 그중 10%인 2만7천원을 매번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유흥주점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든 업소가 아니고 여종업원이 개인의 의지로 애프터를 나간 것일뿐 성매매를 알선 한것은 아니다"며 항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유지 이유를 밝혔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치매관리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

### 치매지킴이 양성교육 등 운영 성과 인정 받아

전주시가 도내 시군 가운데 치매관리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14일 전주아름다운컨벤션에서 열린 '2016년 치매관리사업 전라북도 성과대회'에서 치매환자의 관리강화를 위해 치매지킴이 양성교육과 행복한 두뇌교실 등을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시는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올 한해 경로당과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 151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진'을 운영, 총 1만2749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다.

또 어르신들의 인지강화를 위해 자체 제작한 인지훈련지 및 웃음치료,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치매관리 및 예방에 관심 있는 전주시 14개동 통장 528명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사전 지식 및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기본정보 등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전주시민의 치매예방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는 치매예방을 위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민들을 경증치매환자와 인지저하자, 치매고위험군 등 3그룹으로 올해 총 267회 2545명을 대상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시는 인지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치매환자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은 만큼 내년도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치매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전주시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 병·의원 등 총 30개소로, 관내 만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jonju.go.kr>)에서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전주시민들의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치매상담센터(063-281-6291~5, 624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민근 기자

전라북도 |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